

내 삶에도 적용되는 보스의 다음 말들이 더욱 궁금해진다.

후다닥 점심을 해치우고 책을 폈다.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 물이 고이기 쉬운 곳은 호수가 되고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을 말라버려. 격차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야. 지역에서 돈을 쓰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그러나 반대가 되면 돈이 밖으로 흘러나가 지역이 가라앉아버려. 그렇게 지역 격차는 커지는 거야. 그렇지만 걱정마! 말라붙은 곳을 윤택하게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재분배의 비, 세금이야!”

조금 전까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며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인이 떠올랐고, 내 월급에 매달 일정 금액 떼어가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생각났다. 떼어가는 세금이 많으니 나 또한 불만이 있었다. 그런 내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보스가 말한다.

“세금이 비를 내려서 재분배하고 있는 거야! 연금의 일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지원금 등이야!”

“그럼 저도 그 비를 맞고있는 건가요?” 유토가 나를 대신해 묻는다.

물보라가 일 듯 내 생각도 같이 출렁인다. 보스는 바로 답을 준다.

“그럼~. 공무원의 월급이나 공공사업에 쓰이는 돈도 격차를 줄여, 치안이 불안한 나라면 보디가드를 고용할 수 있는 부자만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도서관, 도로 같은 공공설비 또한 그렇지. 격차를 줄이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고! 정부가 무엇에 돈을 쓰는지가 중요해! 소비와 투자의 흐름에 따라 미래가 선택되는 거야!” 보스는 말한다.

전율이 돈는다.

이 책은 가르침이 아니다.

내 삶을 서술하고 있다.

내 일상을 꾸려나가게 해주는 월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내 월급이 돈 이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돈을 쓰는 방향에 따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나침반처럼 말하고 있다고 했다.